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

박진아 이경숙 전연진[†]

한신대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는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전국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811명이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전문치료기관에서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고위험 사용자는 1명(0.1%), 정신건강 관련 전문상담이 요구되는 잠재적 위험사용자 A군은 9명(1.1%), 효율적인 인터넷 사용 시간 및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잠재적 위험사용자 B군은 109명(13.4%)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중독군 어머니는 정상군 어머니에 비해 정신적으로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하고, 자녀와 사이에서는 관계적 좌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셋째, 인터넷 중독군 어머니의 자녀는 정상군 어머니 자녀에 비해 기질적으로는 더 까다롭고 더디며, 순하지 않은 반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외현화 행동문제, 불안과 분리불안이 높은 내면화 행동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0-3세 영유아, 인터넷 중독, 어머니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기질, 행동문제

* 본 연구는 아산재단의 2011년 중진학자 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한신대학교의 2014년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전연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중구 다산로 201 흥진빌딩

Tel : 02-2250-3120, E-mail : jinny@kyci.or.kr

20세기 후반부터 보급된 초고속 통신망과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의 양적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국민의 78.4%에 달하고(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전 세계 155개국 중에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및 발전지수가 최근 3년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IT 강국이 되었다(엠티나래, 2013). 이렇듯 최근 10년 동안 인터넷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인류의 생활방식도 점차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2014년 1월 7일 존 চে임버스 시스코 회장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14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인간 주위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인간의 구체적인 개입이나 지시가 없어도 인터넷 연결망이 개인의 일상 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관할하는 정책까지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고 하였다(MK 뉴스, 2014.1.13). 실제로 개인이 삼성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에 ‘집으로 가능 중’이라고 말하면 인터넷 연결망을 통하여 집 안 온도를 감지한 스마트 에어컨이 작동하고, 냉장고, 세탁기, 오븐, 로봇 청소기 등이 자발적으로 청소와 집안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MK 뉴스, 2014.1.13). 인터넷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모든 개인이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들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사용의 발전과 반대로 인터넷의 부작용인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중독은 유, 무선 인터넷을 과다사용

하여 인터넷 이용에 대한 금단,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로, 고위험 사용자와 잠재적 위험 사용자를 포함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2a). Griffiths(1996)가 인터넷에도 중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Goldberg(1996)가 물질남용(substance abuse) 장애에 근거하여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를 제안한 이래로(신길순, 구자경, 2005, 재인용), Young(1996)은 일상생활에서의 무관심과 무력감,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분별력 기능 약화, 금단현상 및 내성 증상 등 인터넷 중독의 부작용을 강조하였다. 인터넷 중독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사소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리적, 병리적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법 관련 논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디지털타임스, 2014.1.26), 2013년에 개정된 미국의 정신의학편람인 DSM-5에서는 인터넷 게임중독을 행위중독으로 분류하여 진단기준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제기할 정도이다(APA, 2013). 실제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 7조 8천억에서 10조 1천억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산성 저하 및 사회통합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박부환, 김병영, 장은정, 2013). 20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만 5세-49세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7.2%인 2,203명이 인터넷 중독자로 판별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www.iapc.or.kr)를 설립하여 인터넷 중독 진단, 상담 및 예방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에

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공동 협력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2013.6.14).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많은 연구자들도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중독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 및 대학생 인터넷 중독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동일, 이윤희, 강민철, 정여주, 2013; 김소연, 이동훈, 2013; 권미영, 황지영, 정혜윤, 송시형, 2013; 박부환, 김병영, 장은정, 2013; 박승민, 김은하, 강민철, 2013; De Leo, & Wulfert, 2013)이며, 성인의 인터넷 중독을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신길순과 구자경(2005)은 30-50대 남녀 389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을, 박승민, 임은미와 장선숙(2008)은 20대-40대 39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동기와 과다 사용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고재욱과 김수봉(2012)은 60세 이상의 노인 29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모두 20대-6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인 중에서도 특별히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초점을 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의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0-3세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은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영유아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위험요인이 된다.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은 0-3세 영유아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고 다양한 심리

적 문제를 유발시키며 이후 자녀의 성장과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인터넷 중독인 경우 자연히 0-3세 영유아도 생후 초기부터 인터넷에 노출되며 결과적으로 영유아 또한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한겨레, 2014.1.2.).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5세-9세 유아의 인터넷 중독률은 7.3%로 만 5세-49세 성인 중독률(7.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한국정보화진흥원, 2012a) 인터넷 중독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3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이미 생후 초기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3.11.20.). 이러한 실태는 만 2세 이전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도록 소아과학회에서 제도적 질차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실정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0-3세 영유아기는 뇌 발달을 비롯한 인지·사회·정서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의 발달은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 더 나아가 성인기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0-3세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을 탐색하는 것은 어머니 뿐 아니라 이후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 영유아기 인터넷 중독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개입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80.5%는 후속 출산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사회적 상황(연합뉴스, 2014.2.1)을 고려한다면, 0-3세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터넷 중독 실태를 탐색하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위험요인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중독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 내외 변인들이 탐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김동일 외, 2013; 권미영 외, 2013), 스트레스(신길순, 구자경, 2005; 연합뉴스, 2014.1.27), 부모-자녀관계(김소연, 이동훈, 2013; 배성만, 박중규, 고영삼, 2012; 이경선, 이지연, 장진이, 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심리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부모-자녀관계나 애착관계가 좋지 않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은 경우,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우울과 불안을 비롯한 정신건강,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자녀와의 모-자녀관계가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뿐,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등 다양한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이들 변인이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제기된다. 특히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변인까지 포함하여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을 면밀하게 탐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3세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를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가 인터넷에 중독된 0-3세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어머니의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유무, 자녀의 수 및 연령)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모-자녀 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경기지역,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811명이었다.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영유아 자녀의 평균 연령은 33.4개월(SD=9.24)이며,

성비는 남아 455명(56.1%), 여아 356명(43.9%)이었다. 연구대상에 대한 자세한 인구학적 배경은 표 1에 기술하였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35.7세(SD=4.11), 어머니의 경우 33.7세(SD=3.81)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부의 경우 사무직 221명(26.8%), 생산직근로자 78명(9.4%), 서비스직 72명(8.7%), 서비스업 경영 65명(7.9%), 운수장비

운전 50명(6.1%) 등의 순이었다. 모의 직업은 전업주부 416명(50.4%), 사무직(6급 이하 공무원) 108명(13.1%), 서비스직 54명(6.5%), 교직 48명(5.8%) 등의 순이었다. 부모의 학력, 직업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도구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K척도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02)이 개발한 한국형 성인용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K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예;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금방 답답하고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사이버 세상과 현실이 혼동될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을 기준으로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67점 이상), 잠재적 위험사용자 A군(54-66점), 잠재적 위험사용자 B군(43-53점), 일반 사용자군(42점 이하)으로 분류한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전문 치료기관에서 인터넷 병적 사용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사용자, 잠재적 위험사용자 A군은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용자, 잠재적 위험사용자 B군은 건강한 인터넷 사용과 사회적, 직업적 기능 수행을 위해 스스로 효율적인 시간 및 자기 관리가 필요한 사용자, 그리고 일반 사용자군은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다. 고위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사용자 A군과 잠재적 위험사용자 B군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중독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의 대인관계가 줄어들면서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안, 초조,

표 1. 연구 대상 영유아와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 (N=811)

변인		N(%)
영유아 연령	0~11개월	17(2.1)
	12~23개월	109(13.4)
	24~35개월	293(36.1)
	36~47개월	392(48.3)
영유아 성별	남아	455(56.1)
	여아	356(43.9)
연구대상의 지역별 분포	서울/경기	345(42.5)
	충청도	121(14.9)
	경상도	129(15.9)
	전라도	204(25.1)
	강원도	12(1.5)
어머니 학력	대학원졸	70(8.5)
	대졸	516(62.5)
	고졸	218(26.4)
	중졸	3(0.4)
	초졸	4(0.5)
사회경제적 지위	100~200만원	93(11.3)
	200~300만원	224(27.1)
	300~400만원	204(24.7)
	400~500만원	131(15.9)
	500~600만원	85(10.3)
	600~700만원	29(3.5)
	700만원 이상	44(5.3)

짜증, 분노를 경험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조절을 위한 외부적 도움이 필요한 (고재욱, 김수봉, 2012) 인터넷 중독 대상이다.

어머니의 정신건강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였다.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맹제와 김계희(1993)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Redloff(1977)의 Cent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0-3점까지 4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표준화한 Spielberger와 동료들(1970)의 특질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리커트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92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Abidin(1995)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PSI) 축약형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2008)의 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K-PSI-SF)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보고 형식으로 만 1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PD),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DC)의 3개 하위척도로 측정한다. 각 하위척도별로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PSI-SF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부모의 고통 .80,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78, 까다로운 아동 .83로 높게 나타났다.

모-자녀관계

0-3세 영유아와 어머니의 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mphaus와 Reynolds(2006)가 개발한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t(PRQ-P)를 이경숙, 박진아, 이미리, 신유림(2013)이 표준화한 한국판 유아용 PRQ(K-PRQ-P)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애착(Attachment, 11문항), 훈육(Discipline Practice, 9문항), 관여(Involvement, 8문항),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 7문항),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 8문항)의 5개 영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은 '전혀 없다' 0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까지 3점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특성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PRQ-P의 내적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애착(Attachment)은 .80, 훈육(Discipline Practice)은 .79, 관여(Involvement)는 .76, 양육효능감(Parental Confidence)은 .78, 관계적 좌절감(Relational Frustration)은 .76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질

0-3세 영유아 자녀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한 2008년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질문지(보건복지가족부, 2009) 중 영유아의 기질을

문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영유아의 활동적 기질(예; 신체 움직임이 활발하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한다), 순한 기질(예; 환경이 바뀌어도 잘 적응한다), 까다로운 기질(예; 밤에 자주 깬다), 더딘 기질(예; 새로운 것에 익숙해 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의 총 4문항으로 각 해당 기질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한다.

자녀의 행동문제

0-3세 영유아 자녀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Briggs-Gowan과 Carter(2001)의 영유아 사회정서측정도구(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ITSEA)를 이경숙(진행중)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TSEA는 어머니가 12-36개월 영유아 자녀의 사회정서행동문제를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항상 그렇다’(2점)의 3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외현화 행동문제(활동/충동성, 공격/반항성, 또래 공격성), 내면화 행동문제(우울/위축, 불안, 분리불안, 행동억제), 비조절 행동문제(부정적 정서성, 수면문제, 섭식문제, 감각예민성), 유능감(순응, 주의력, 숙달/자발성, 모방/놀이, 공감능력, 친사회적 또래관계) 등 총 4개 하위영역(총 16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각 하위영역별 내적 신뢰도인 Cronbach α 의 범위는 .89에서부터 .91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첫째,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실태 및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검증을 살펴보

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인터넷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실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실태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전문치료기관에서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고위험 사용자는 1명(0.1%), 정신건강 관련 전문상담이 요구되는 잠재적 위험사용자 A군은 9명(1.1%),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시간 및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잠재적 위험사용자 B군은 109명(13.4%)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따라서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잠재적 위험사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중독군은 총 14.6%임을 알 수 있다.

표 2.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습관 척도 결과

(N=811)	
	빈도(%)
고위험사용자	1(0.1)
잠재적 위험사용자 A군	9(1.1)
잠재적 위험사용자 B군	109(13.4)
일반군	692(85.4)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 차이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어머니의 연령,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유무, 자녀의 수 및 자녀의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 A군(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사용자) 9명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 B군(효율적 시간관리가 필요한 사용자) 109명, 그리고 고위험 사용자 1명(집중치료가 요구되는 사용자)을 포함하여 총 119명을 인터넷 중독 집단으로, 나머지 일반군 692명은 정상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0-3세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수 및 자녀의 연령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어머니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 차이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어머니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t=3.14, p<.01$), 불안($t=3.48,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군 어머니는 정상군 어머니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불안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중 부모의 고통($t=7.02, p<.001$), 역기능적 상호작용($t=4.71, p<.001$), 까다로운 아동($t=5.73, p<.001$) 영역, 모-자녀 관계 중 관계적 좌절감($t=3.19, p<.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군 어머니는 정상군 어머니에 비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하고, 자녀와 사이에서 관계적 좌절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자녀의 기질 및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녀의 순한 기질($t=-2.35, p<.05$), 까다로운 기질($t=3.77, p<.001$) 및 더딘 기질($t=3.1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행동문제 중에서는 외현화 행동문제($t=2.24, p<.05$), 불안($t=2.95, p<.01$), 분리불안($t=2.73, p<.01$), 내면화 행동문제($t=2.86, p<.01$), 부정적 정서성($t=2.86, p<.01$), 비조절 행동문제($t=2.8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군 어머니의 자녀가 정상군 어머니 자녀에 비해 기질적으로 더 까다롭고 더디며, 순하지 않은 반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외현화 행동문제와, 불안과 분리불안이 높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인 정서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가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

표 3.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의 차이 (N=811)

변인		인터넷 중독군 (N=119) M(SD)	정상군 (N=692) M(SD)	t
어머니 정신건강	우울	14.77(7.49)	12.60(7.31)	3.14**
	불안	43.52(12.95)	39.24(13.07)	3.48***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34.45(6.54)	29.88(7.93)	7.02***
	역기능적 상호작용	23.68(5.59)	20.97(6.10)	4.71***
	까다로운 아동	28.72(8.74)	24.21(8.10)	5.73***
	총 양육스트레스	86.85(17.28)	75.06(18.02)	6.87***
모-자녀 관계	애착	42.48(9.45)	42.63(10.60)	-0.12
	훈육기술	43.21(7.40)	41.46(8.43)	1.73
	관여	44.81(9.50)	46.42(9.99)	-1.48
	양육효능감	33.73(9.26)	33.63(10.11)	0.08
자녀의 기질	관계적 좌절감	59.35(10.02)	55.14(11.44)	3.08***
	활동적 기질	3.44(0.64)	3.53(0.58)	-1.63
	순한 기질	2.82(0.62)	2.97(0.67)	-2.35*
	까다로운 기질	2.23(0.84)	1.94(0.81)	3.77***
자녀의 행동문제	더딘 기질	2.09(0.72)	1.87(0.74)	3.19**
	활동/충동성	0.84(0.47)	0.73(0.42)	1.91
	공격/반항성	0.58(0.31)	0.51(0.29)	1.93
	또래 공격성	0.24(0.32)	0.19(0.26)	1.17
	외현화 행동문제	0.55(0.30)	0.48(0.25)	2.24*
	우울/위축	0.31(0.22)	0.27(0.17)	1.65
	공포	0.28(0.36)	0.26(0.37)	0.24
	불안	0.37(0.23)	0.28(0.23)	2.95**
	분리불안	0.95(0.33)	0.83(0.36)	2.73**
	행동억제	0.92(0.48)	0.84(0.48)	1.30
	내면화 행동문제	0.64(0.23)	0.55(0.23)	2.86**
	부정적 정서성	0.77(0.37)	0.55(0.23)	2.86**
수면문제	0.58(0.23)	0.52(0.25)	1.69	
섭식문제	0.69(0.27)	0.64(0.24)	1.66	
감각예민성	0.49(0.30)	0.42(0.28)	1.86	
비조절 행동문제	0.63(0.21)	0.56(0.20)	2.89**	
자녀의 행동문제	순응	1.24(0.40)	1.21(0.42)	0.54
	주의력	1.42(0.41)	1.44(0.43)	-0.31
	숙달/자발성	1.51(0.34)	1.43(0.45)	1.64
	모방/놀이	1.27(0.39)	1.23(0.48)	0.63
	공감능력	1.10(0.48)	1.04(0.49)	0.90
	친사회적 또래관계	1.14(0.52)	1.08(0.56)	0.90
	유능감	1.28(0.30)	1.24(0.37)	0.88

*** $p < .001$, ** $p < .01$, * $p < .05$

표 4.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N=811)

변인		B	S.E	Wald	OR	95% CI
어머니 정신건강	우울	1.79	.83	4.63*	5.96	1.17-30.34
	불안	-.00	.02	.00	1.00	.97-1.0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0.25	.01	4.54*	1.03	1.10-1.05
모-자녀관계	관계적 좌절감	-.00	.01	.22	1.00	.99-1.01
자녀 기질	순한 기질	-.19	.27	.51	.83	.49-1.40
	까다로운 기질	.05	.22	.067	1.05	.69-1.61
	더딘 기질	.04	.23	.03	1.04	.66-1.63
자녀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26	.71	.14	.77	.19-3.06
	내면화 행동문제	1.15	.91	1.60	3.14	.53-18.57
	비조절 행동문제	-.58	1.14	.26	.56	.06-5.23

* $p < .05$

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어머니의 정신건강(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중 관계적 좌절감, 자녀의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 자녀의 행동문제 중 외현화 행동문제, 내면화 행동문제 및 비조절 행동문제 등 총 10개 독립변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2 Log Likelihood는 266.61, X^2 은 26.38($p=.003$)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들이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0-3세 영유아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중독이 될지 안 될지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정확도는 81.2%로 높게 나타났다.

투입된 독립변인들 중 어머니의 우울과 양

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우울 할수록 어머니가 인터넷에 중독 될 가능성이 5.96배 증가하며,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어머니가 인터넷에 중독 될 가능성이 1.03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우울을 심하게 느끼고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 지,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

의 기질과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전문치료기관에서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고위험 사용자는 1명(0.1%), 정신건강 관련 전문상담이 요구되는 잠재적 위험사용자 A군은 9명(1.1%),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시간 및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잠재적 위험사용자 B군은 109명(13.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인터넷 중독에 대한 잠재적 위험사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중독군은 총 14.6%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15,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녀 성인 30대 중 인터넷 사용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모두 포함한 인터넷 중독률이 5.2%였고, 남성의 인터넷 중독률(8.5%)이 여성의 중독률(5.8%)보다 높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률(14.6%)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0-3세 영유아기는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애착관계와 어머니의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을 통해 개인의 기본적 성격형성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자녀를 둔 어머니 중 14.6%가 인터넷 중독자라는 본 연구 결과는 이들 어머니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 제공이 시급하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수 및 자녀의 연령)에는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이 어머니 연령, 학력, 직업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의 수 및 자녀의 연령과 뚜렷한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소득수준별로 인터넷 중독률에 큰 차이가 없고,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 가정의 인터넷 중독률에도 큰 차이가 없었던 20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은 어머니의 가정환경을 비롯한 인구학적 배경보다는 다른 요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추후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 특히 청소년기 자녀나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과 인구학적 배경이 관련이 없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발달적 요구가 다른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다양한 연령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을 시기별로 탐색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 중독군 어머니는 정상군 어머니에 비해 더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자녀와 관계에서 좌절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인터넷 중독자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문제(71.0%)와 정서문제(60.7%)를 경험하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2a), 인터넷 중독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으며(신길순, 구자경, 2005), 더 불

안하고 우울하다는(김윤희, 2006; 박중규, 배성만, 2012; 장재홍, 김광현, 2009)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중독된 0-3세 영유아의 어머니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자녀양육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자녀와 관계는 좋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서로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켜 결국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심리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면서 자연적으로 자녀에게 부적응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이는 또 다시 어머니가 더욱 더 우울하고 불안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해결되지 못하고 가중되면 어머니는 회피 수단으로 더욱 인터넷에 몰두해 결국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이 해결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중독된 0-3세 영유아 어머니에게는 우울과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부모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자녀와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 증진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 중독군 어머니의 자녀는 정상군 어머니 자녀에 비해 기질적으로 더 까다롭고 더디며, 순하지는 않은 반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외현화 행동문제, 불안과 분리불안이 더 높은 내면화 행동문제,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들은 인터넷에 중독된 0-3세 영유아 어

머니의 경우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행동문제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자녀양육 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군 어머니를 위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0-3세 영유아 자녀의 기질적 취약성을 어머니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녀의 행동문제에 대해 비난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훈육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양육태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중독 회복자 사후관리 지원체계에 있어 인터넷 중독 회복자 자조모임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한국정보화진흥원, 2012b)를 고려할 때, 0-3세 자녀를 둔 인터넷 중독 어머니들의 자조집단을 구성하도록 도와 자유롭게 어머니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녀양육을 서로 지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2012년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에서 인터넷 중독자들 중 약 90%가 무엇보다 ‘가족의 도움’이 인터넷 중독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었음을 고려한다면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남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지지와 도움에 개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중독된 0-3세 영유아의

어머니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개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남편 또는 상황에 따라 조부모를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시키는 가족적 치료접근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 회복자 사후관리 지원체계에서 가정방문 상담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나타났었음(한국정보화진흥원, 2012b)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에 중독된 0-3세 영유아 어머니에게 상담 및 부모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어머니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및 중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보고한 질문지를 통해 분석하였으므로 자기보고의 편파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이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심도있게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인터넷 중독군 어머니와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분석을 실시하여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0-3세 영유아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 양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건강, 자녀 양육과 자녀의 행동문제에는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정신건강, 양육스트레스, 모-자녀관계 및 자녀의 기질과 행동문제의 영향력을 살펴보았

기 때문에 부부관계나 결혼만족도를 비롯한 부부 관련변인, 그리고 아버지의 인터넷 중독 등이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또한 어머니의 인터넷 중독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는 탐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부부 관련 변인, 아버지 인터넷 중독 및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인터넷 중독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고재욱, 김수봉 (2012). 노인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32(2), 649-668.

권미영, 황지영, 정혜윤, 송시형 (2013).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3(2), 65-86.

김동일, 이윤희, 강민철, 정여주 (2013). 정신건강 문제와 인터넷 중독: 다층메타분석을 통한 효과크기 검증. *상담학연구*, 14(1), 285-303.

김소연, 이동훈 (201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2), 257-277.

김윤희 (2006).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모형구축.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 의학*, 21, 69-75.

- 디지털타임스 (2014.1.26.). “내달 국회 게임중독법 논의 못할 듯”.
- 박부환, 김병영, 장은정 (201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8, 71-95.
- 박승민, 김은하, 강민철 (201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 변화에 대한 잠재계층분석과 잠재계층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4(5), 2987-3002.
- 박승민, 임은미, 장선숙 (2008). 성인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과다사용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차이. *상담학연구*, 9(2), 421-435.
- 박중규, 배성만 (2012).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심리, 정서적 문제가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19-434.
- 배성만, 박중규, 고영삼 (2012).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심리, 행동적 문제와 인터넷 사용동기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529-544.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한국 아동청소년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 보도자료 (2013.6.14.). “정부,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에 전면 대응 나선다”
- 신길순, 구자경 (2005). 성인의 심리적 특성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6(4), 1151-1162.
- 엄나래 (2013). 인터넷/미디어 중독 분야 정책 변화와 심리학자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99-99.
- 연합뉴스 (2013.11.20.). “평균 세 살도 안돼 스마트폰 처음 만진다”
- 연합뉴스 (2014.1.27.).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 인터넷 중독에 직접 영향”
- 연합뉴스 (2014.2.1.). “아이 키우는 엄마 80% 자녀 더 낳을 생각 없다”
- 이경선, 이지연, 장진이 (2013). 부모와의 애착과 중독적인 인터넷 사용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91-106.
- 이경숙, 박진아, 이미리, 신유림 (2013). 한국판 부모자녀관계 척도(Korean-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 K-PRQ-P)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여성*, 18(3), 441-458.
- 장재홍, 김광현 (2009). 인터넷 중독에 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 1996년부터 2007년까지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6(4), 157-183.
-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2008).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 도서출판: 학지사.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381-399.
- 한겨레 (2014.1.2). “스마트폰 자주 보는 3살 이하 아이, 뇌에 ‘깁스’ 두른 꼴”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2). *인터넷중독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a). *2012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b). *인터넷 중독 회복자 사후관리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rofessional Manual(3r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Internet*

- gaming disorder*. Retrieved from <http://www.dsm5.org/Documents/Internet%20Gaming%20Disorder%20Fact%20Sheet.pdf>.
- Briggs-Gowan, M. J., & Carter, A. S. (2001). *Infant Toddler Socio-Emotional Assessment (ITSEA) Manual version 1.1*. The Connecticut Early Development project, Yale University.
- De Leo, J. A., & Wulfert, E. (2013). Problematic Internet Use and Other Risky Behaviors in College Students: An Application of Problem-Behavior Theory.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 27(1), 133-141.
- Goldberg, I. (1996). *Internet addiction disorder*. Retrieved from <http://www.cog.brown.edu/brochure/people/duchon/humor/internet.addiction/html>.
- Griffiths, M. D. (1996). Internet addiction: An issue for clinical psychology. *Clinical Psychology Forum*, 97, 32-36.
- Kamphaus, R. W., & Reynolds, C. R. (2006). *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 Manual. Pearson Press.
- MK 뉴스 (2014.1.13.).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다”
- Re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2, 385-401.
- Spielberger, C. D., Gorsuch, R. K.,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Young, K.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 237-244.
- 1차원고접수 : 2014. 02. 03.
심사통과접수 : 2014. 03. 13.
최종원고접수 : 2014. 03. 25.

**The effects of mothers' mental health, parenting stress,
mother-child relationship, children's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young children's mothers**

Jin-Ah Park

Kyung-Sook Lee

Yeun Jin Chun

Hanshin University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ing the effects of mothers' mental health, parenting stress, mother-child relationship, children's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young children's mothers. Subjects were 811 mothers having young children aged 3 or unde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how internet addiction patterns of young children's mothers, 0.1% of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the high risk internet user group needed the intensive treatment at the specialized agency. 1.1% of the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type A among latent risk user group needed the professional counselling on their mental health, and 13.4% were classified as type B among latent risk user group needed. for effective time management. Second, mothers in the internet addiction group showed more depression and anxiety, experienced higher parenting stress, and felt more relational frustration between mother and child than ones in normal group. Third, young children of internet addicted mothers showed more difficult or slow to warm-up temperament and more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an ones in the normal group. Finally,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n mothers'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young children, internet addiction, mother's mental health, parenting stress, mother-child relationship
temperament, behavior problem